

8월 22일(월) / 예8-10

▶**내용요약:** 에스더 8장에서는 하만이 처형된 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들을 살려달라는 청원을 한다. 9장은 유다인들이 아달월 13일에 대적들을 진멸하는 모습이 나온다. 유다인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며 이를 기념하여 부림절이 생긴다. 10장은 아하수어로 왕의 행적과 그에게 총애를 받게 된 모르드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질문:** 말씀에 보면 아하수어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아 자신의 모든 종족을 안위한 사람은 누구인가?(10장)

▶**생각하기:** 8장에서 아하수어로 왕은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다인들을 살리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죽이라는 새로운 조서를 내린다. 이로 인해 전세는 역전되어 유다인들은 존귀함을 받게 되고 유다인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원수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9:22)라고 말씀은 기록한다. 왕의 조서가 유다인들에게는 죽을 운명이던 자신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되었던 것이다.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임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8월 25일(목) / 렘16-18

▶**내용요약:** 16장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기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한 금지 조항을 알려준다. 17장은 유다의 죄를 확인하고 심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술한다. 18장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백성들은 참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는 악한 모습을 보인다.

▶**질문:**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17장)

▶**생각하기:**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존재인지를 알려준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실패해서 아무 것도 아닌 진흙도 그것으로 다시 빚으면 걸작품이 된다. 우리도 지금 아무 것도 아닌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임을 고백하기를!

8월 28일(주일) / 렘35-38

▶**내용요약:** 35장에서는 레갑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유다를 교훈하신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금하였기에 이에 순종하여 마시지 않는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과 비교해서 조상에게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교훈을 준다. 36장은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읽게 한다. 하지만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야김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기록된

8월 23일(화) / 렘1-3

▶**내용요약:**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으로 유다의 멸망을 다룬다. 1장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2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리고 우상과 이방민족을 따르다가 심판을 받는다. 3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행한 죄를 비교하면서 회개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게 된다.

▶**질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기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가?(1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하였고”(1:5)라고 말씀하신다. 출생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구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를 더 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 분을 가까이 함이 진정한 복이요, 행복한 삶의 비결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8월 26일(금) / 렘29-31

▶**내용요약:** 29장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통해 거저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0장에서는 유다에게 구원과 위로의 말씀이 주어진다. 환란 중에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한다. 31장은 미래에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을 구원해서 강한 유다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자기 백성과 맺는 새로운 언약이 기록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인 요 ()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29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며 심판하시지만 그 분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30:22)고 말씀하신다. **회복의 은혜**를 선언하시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참고 견뎌내면 된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마음에 두고 계심을 잊지 말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자!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다. 37장은 환관과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거저 예언 때문에 평안하다고 자위하는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참된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오히려 구덩이에 갇히게 된다. 38장은 구덩이에서 구출된 예레미야의 모습과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다.

▶**질문:**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원한 왕궁내시이며 구스인은 누구인가?(38장)

8월 24일(수) / 렘4-6

▶**내용요약:** 4장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결국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한다. 5장은 귀천의 분별없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고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하신다. 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의 죄로 인해 확정되었기에 야만적인 침략과 비참한 고통의 기간이 있을 것임을 알려준다.

▶**질문:**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성읍은 어느 곳인가?(5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지만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아버지로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목이다. 자식을 위해 잘못을 훈계해야만 하는 아버지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서인들이 되자!

8월 27일(토) / 렘32-34

▶**내용요약:** 32장은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과 백성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온다. 33장은 포로귀환의 약속이 확인되면서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계약들이 끝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준다. 34장은 시드기야 왕이 당할 일에 대한 예언과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겨서 형벌을 받게 될 모습이 예언된다.

▶**질문:**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하지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유다의 왕은?(34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33:2)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왜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생각하기:**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행복할 것을 권면한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로 간주해 버린다. 그리고 거저 예언자들은 끝까지 잘 될 것이며 유다가 싸울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